

협동단지화로 축산의 발전을 이룩하자



선산군 농촌지도소 조 현 달

같은계층의 한두살 차이에 세대차가 난다는 말을 곧잘한다. 시대가 급변한다는 뜻일 것이다.

농촌지도사업도 세월따라 퇴색되어 가는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 못함에 있을 것이다. 70년초 통일벼 재배와 같은 기적이 없는한 농민들로 부터 점차 소외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벼 신품종 재배가 한창일때 축산은 유축농가란 말을 많이하고 권장하였다. 각농가 마다 가축을 길러 분뇨로 퇴비를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할뿐 아니라, 사육된 가축으로 약간의 소득을 얻게되는 바람직한 농가형태였다.

그당시 주재지도사를 하면서 마을공동 사업으로 한우 30두를 집단사육하겠다고 하였을때 과연 성공할것이나 하는 동민의 의아심 속에서 전동민을 동원 풀사료 마련하고 배합사료가 변변치 못하여 단미사료를 시장에서 구입, 배합하여 먹이든 그때부터 20년 세월이 흘러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축산의 형태는 별로 달라진게 없다. 다만 축종별 배합사료가 시중에 범람하여 사육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졌을까?

카우보이가 있는 광활한 땅에 사는 국민이. 우리나라의 축산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국민소득이 높아짐과동시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

할때 과연 이 좁은 땅에서 소비물량을 제값에 충당할것인가? 또한편 값싼 축산물을 팔아보겠다는 약삭빠른 우루과이라운드가 더욱 거세어 지지 않을까?

경지는 협소하고 사육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풍토에 맞는 새로운 경영의 형태를 모색 하여야 한다.

주어진환경(경지협소, 규모의 영세성)속에서 더욱 성숙된 축산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려면 적어도 두가지 측면에서 획기적 발전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는 축산의 협동단지화이고 둘째는 시설의 현대화와 1.5차 산업이다.

돼지나 닭은 거의가 협동단지화및 기업화되어 선진국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우비육이나 낙농은 몇농가를 제외하고는 전술한 유축농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은 협소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 원인이 있을것이다. 한두마리 길러오던 집단부락내에서 점차 사육두수는 늘고 이웃과의 마찰이 심화되기만한다. 이웃농가의 눈총이 지금까지는 애교로 받아 들였을지 모르나 이제 농민의 수준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맑은공기를 마시고 싶어한다. 식수가 오염되고 악취가 풍기게 된다면 이웃가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등을 돌리려 할것이다.

다음으로 노동력의 문제이다.

사육규모가 크건 작건 사육에 필요한것은 똑같이 해야된다. 사료조달, 먹이주기, 쪼갬기등 이모든것의 편리를 위하여 파이프라인설치, 목책, 자동 급수기가 만들어져야하고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파종기, 예취기, 컷타기, 트랙타도 갖추어져야한다.

이모든것은 경영비를 과중하게하고 상대적으로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웃축산농가와 함께 더불어 사는 협동단지화 시켜 나가야한다.

예를들면 소5마리를 1개주로하여 가까운 이웃의 영세축산농가 5호 이상이 협동하게된다면 상당한 자본이 형성되고 현재소유하고있는 농기계까지 포함한다면 조그만한 기업의 형태를 갖추게 될것이다.

농지이용법이 완화되어 농지전용이 가능한지역이 많을뿐만아니라 기계사용이 불가하거나 수리불안전답은 묵혀두는곳이 많아졌다. 약간의 자본금으로도 협동한다면 농지구입이 용이하여 어떤 일정장소에 이주하여 공동시설이 쉽게 만들어 질것이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아침저녁 돌보아야하던 그어두 킴킴한 축사에는 이제 발길을 멈추어도 된다.

현대화된 시설에서는 전문사육사가 사료구입에서 축산물의 판매, 질병까지도 여러분의 노력을 대행할것이며 여러분은 다른 분야의 소득원을 찾아도 되는 당당한 주주가되어 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만 받으면 될것이다.

둘째 시설의 현대화및 1.5차산업이다.

시설의 현대화란 노동력절감및 가족에게 알맞는 환경을 주어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다.

가족에게 먹이먹는시간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은 다알고있다.

우리축사의 시설형태는 어떠한가?

가족을 위함보다 사육사 위주인 형태이다.

소는 추위에 견디는 힘은 강하나 더위에는 약하다. 7~8월의 고온을 어떻게 피하게 하느냐에 초점을 둔 축사이어야 한다. 겨울추위를 피하게하는 축사라면 문제 있는것이다.

또하나 분노의처리 문제이다.

즉 시설의 현대화란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수있는 시설이 되었을때 축산의 발전이 오는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아무리 좋은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의 발휘는 어렵다.

다음으로 축산물의 1.5차 산업이다.

이제 농민도 성숙할대로 성숙되었다.

조그마한 행정지원만 뒷받침 된다면 얼마든지 홀로서기 할수있는 능력이 있다. 농산물의 가공권은 당연히 농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농사를 경영하는 인구는 줄고 농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간다는 사실, 이는 농민이 제값을 못받는다는 뜻이된다.

생산물, 가공이익까지 농민에게 주어져야한다.

몇개의 협동단지가 합하여 축산물가공 공장이 세워진다면 이제까지 사육에 얽매어 있는 인력은 가공공장에 취업 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게 되는 이중의 효과가 부여 될것이다.

끝으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나만 살겠다는생각, 남의탓 이라고만 느끼는 감정 이것이 오늘날의 병폐인듯하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축산인은 소와같이 묵묵히 일하면서 뭉쳐져야 하겠다.

우리의 힘의결실이 축산단지로 승화 될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불안,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 다소 사라질 것이다.

외국에서나 보던 그림과 같은 목장 쾌적한 생활 환경은 곧 다음대까지 이어질것이다.

후대의 우리자손들은 그가치를 인정할것이며 존경의 뜻이 마음 가득차리라 본다.